

'가정의 달' 뻥한 선물 대신 실속 금융상품

어린이 전용 적금, 금리우대·소액 장기 목돈 마련 유리

어르신 적금 건강검진 혜택...카드사 환전·할인 이벤트

중학교 2학년 손자를 둔 김엄마(43)씨는 어린이날을 맞을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10만원씩 받는 아들 용돈을 적금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다. 통장을 만들어 돈이 쌓이도록 하는 게 아이 교육에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김씨 아들은 여태껏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오지 않았지만,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가 사준 장난감을 받고 노래방에 가거나 편의점에서 군것질하는데 써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이들,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어린이들에게 이자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 뿐 아니라 여행을 계획하는 가족들이라면 각종 할인 이벤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자 우대해주는 어린이 예·적금 눈길=어린이 금융상품은 이자를 우대해주는 상품이 많다.

NH농협은행이 판매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NH착한어린이통장·적

금'은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1.5%에 우대금리 최고 0.6%포인트까지 연 최대 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특징은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본인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을 보려면 이 통장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에 후원금을 자동 납부할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래 희망을 통장에 적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의 'KB 주니어라이프적금'은 18세 미만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년 기준으로 연이율 1.6%인데, KB국민은행에 가족고객으로 등록된 가족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가족사랑 우대(연 0.2%포인트), KB주니어라이프통장 보유고객이면 주니어라이프우대(연 0.1%포

인트), 자동이체우대(0.1%포인트) 등을 적용하면 최고 2.5%까지 적용된다. 세 배돈이나 용돈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장기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신한은행의 '아이행복적금'은 영유아용 적금 상품이다. 월 1000원부터 20만원까지 1년간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날, 추석 등 특정일 입금 시 연 0.1%포인트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며 우대금리 0.8%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아이 사랑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1년 만기(월 50만원 한도)로 기본 금리 연 1.6%를 제공하며, 적금 가입시 장래 희망을 등록한 경우 0.2%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한 적금도=IBK기업은행의 'W효도적금'은 가정의 달을 맞아 출시한 상품으로, 가정의 달 우대 금리로 0.2%포인트(기존 거래고객), 자녀가 부모 명의의 가입하면 0.15%포인트, 기업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이 상품으로 자동이체하면 0.2%포인트 등을 포함해 최고 2.55%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만기는 1년이다.

각종 효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생일·결혼기념일 등 부모님 기념일 알림 서비스, 건강검진·병원 치료비 등의 할인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다.

◇카드 할인 혜택도=이외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이나 가족들 선물을 준비하려는 고객들이 위해 내놓은 각종 환전 이벤트나 할인 이벤트도 눈길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환전시 90%까지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오! 필수코리야 환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 지출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KB카드사는 5월 한 달간 놀이공원 입장권을 현장에서 구매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할인해준다. 롯데월드는 성인 자유이용권 구매 시 본인에 55%, 동반 3인에 40%, 롯데워터파크는 본인 50%, 동반 3인 30%를 각각 할인해준다.

하나카드는 제주항공 일본·동남아·괘·사이판 노선을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준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48.81 (-15.33) ↑ 금리 (국고채 3년) 2.25% (+0.02)
- ↓ 코스닥 869.93 (-3.68) ↑ 환율 (USD) 1080.60원 (+3.80)



정부-민간기업 수소충전소 확대 협력

산자부·15개 기업 협약...2022년까지 310개소 구축

정부가 민간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수소충전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를 꿈꾸면서도 정작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하다(광주일보 4월 4일 14면)는 지적과 관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대기아차·효성중공업 등 15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 비용이 개소당 30억원에 이르고 운영(연간 약 2억원)과 정비에서도 수익을 내기 어려워 그동안 개별기업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광주에서도 고작 2곳만 운영중이다.

이번에 설립하는 SPC는 여러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초기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이 자생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여러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SPC를 통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는 서울, 부산, 대전 등 8개 시·도에 10개소를 구축한다.

고속도로에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으로 올해는 통행량이 많은 8곳에 도로공사와 현대차 주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유일의 수소차 양산 메이커인 현대차는 충전 설비 핵심기술 개발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수소차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두배 큰 앞새주 완판

보해, 3만5000명 추가 생산



기존 보해양조의 앞새주 360ml(왼쪽)와 한정판으로 출시된 앞새주 700ml를 비교한 모습. <보해양조 제공>

보해양조가 앞새주 한정판 제품이 출시 1주일 만에 완판됐다.

2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보인 앞새주 700ml 대용량 3만5000명이 출시 1주일 만에 완판됐다.

맛과 향은 그대로지만 기존 앞새주 360ml에 비해 양은 2배가량 늘었고, 출고가는 1980원으로 비교적 저렴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는 한정판 제품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 등 음식점에서 대용량 앞새주를 찾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유통용 제품을 포함, 총 3만5000명을 더 생산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DJ센터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광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 국제뿌리산업전시회'가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3D업체의 기술구현을 보기 위해 모여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월 출생아수 역대 최저...광주·전남도 감소

2만7500명...전년비 3000명 ↓

초혼연령 높아지고 혼인 줄어

올해 2월 전국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 7500명으로 작년 2월(3만500명)보다 3000

명(9.8%) 줄었다.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정리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광주의 경우 2월 출생아는 800명으로, 지난 2000년 1월(2146명)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3월(1000명) 이후는 1000명 밑으로 출생아 수가 내려간 상황이다. 전남의 2월 출생아는 1000명

으로 전달 1100명보다 감소했다. 전남의 출생아는 2000년 1월만 해도 2649명에 달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데는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와 혼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또 광주의 경우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도에 비해 0.1세 오른 33.1세, 여성은 0.2세 오른 30.3세였다.

전남도 남성 33.1세(전년도 32.9세), 여성 29.8세(29.5세) 등으로 높아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투자자 플랫폼 '캠코'

광주·전남본부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中企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기업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는 재무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중소기업들과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들에게는 한 번,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투자 유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처를 발굴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맡아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공적 지원 연계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투자자가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과 투자자와 연결해주고 일사적인 경영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유용성을 지원하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또 지역 산업단지과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구조혁신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종합포털사이트인 '온기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